

# 言語學과 隣接科學\*

愼 翼 晟

(言語學科 教授)

## 1. 言語學과 隣接科學

科學으로서의 言語學의 資格을 檢討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 言語學의 「自律性」 또는 獨立性이다.

言語學者들은 自律性의 必要性에 관해서 꾸준히 力說해 왔다.

페르낭드·드·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일반언어학 강의)에서, 言語學은 “言語自體를 위해서 또는 그 自體를 目的으로 하여” 言語를 研究해야 된다는 標語처럼 된 文句가 있을 정도이다. 「自律性」의 原則은 言語學에 適用된지 50년만에 言語研究의 初期에는 不可能했던 言語의 本質과 機能에 관해 상당히 一般的인 概念에 到達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形式的(formal) 體系로서의 言語의 研究가 促進된 때에는 「自律性」의 原則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影嚮을 끼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야 言語學은 그 自身の 方法論의 基準을 가진 成熟한 學問으로서의 地位가 굳어졌기 때문에 「自律性」의 原則을 力說할 必要性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다. 最近 數年동안 哲學者, 心理學者, 人類學者, 文藝批評家등 言語學을 專攻하지 않은 學者들이 言語理論과 言語學의 方法論에 더욱 더 많은 興味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言語學을 全體로서 볼 때 自律의 原理가 以前만큼 강하게 主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言語學만의 傾向은 아니다. 行動科學에 屬하는 모든 科學에 나타나고 있는 이 傾向은 이들 科學이 밟고 있는 完成으로의 一般的過程을 立證하는 것처럼 보인다. 初期의 研究는 專門分野사이의 壁에 의해서 어느 정도 制約을 받고 있는 傾向이었는데 現在 우리는 專門分野 사이의 壁이 愈速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特定한 問題에 對해서 複數專門分野로부터의 研究法을 利用하는 것이 옛날 보다는 더욱 자주 시도되고 있다. 言語學은 諸人間科學 중에서도 複數專門分野로부터의 研究法을 더욱 必要로 하는 學問이다. 왜냐하면 言語의 分野에 浸透해 들어오는 많은 人類學的, 哲學的, 心理學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는 1928년 헤이그 第一次 國際 言語學者 會議가 끝난 후 얼마되지 않아 言語 學은 “言語學의 內部를 統合強化하는 同時에 그 視野를 넓혀야 된다”고 宣言한 일이 있다. 왜냐 하면 “現代의 言語學者가 그 傳統的인 研究對象에만 自己를 限

\* 본 논문은 1981년 10월 30일에 기획된 인문과학연구소 開所기념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임.

定한 다는 것은 困難하기 때문이다." 想像力이 多少 不足한 學者가 아닌 以上 言語學者는 言語學을 人類學, 文化史, 社會學, 心理學, 哲學 그리고 더욱 먼 關係에 있지는 物理學, 生理學과 連結하는 共通된 領域에 關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言語가 人間의 活動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많은 隣接科學과의 連結이 要求된다. 또다른 理由에 依해서 言語學과 隣接諸科學과의 關係는 徹底한 檢討가 必要하게 된다. 人間 諸科學 사이의 相互關係의 문제는 言語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主된 理由는 言語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自律的인 構造와 言語가 文化에 대해서 말고 있는 根本的인 役割 때문이다. 人類學者와 心理學者들은 言語學을 人間諸科學 중에서 가장 發展된 가장 精密한 科學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諸學問을 위한 方法論上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피아제(Piaget)가 말한 바와 같이 言語學은 理論構造의 面에서도 그 課題가 嚴密하다는 點에 있어서도 人間 諸科學 중에서 가장 發展했고 다른 諸科學에 대해서 利得을 주고 있다. 今世紀 初에 피어스(Peirce)는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廣範圍하고 成熟한 科學이 된 言語學은 精神의 活動과 所産에 關한 諸研究 중에서 特權的 地位를 가지고 있다."... "專問分野 사이의 壁이 急速히 무너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말은 學問의 自律이라는 것이 인젠가는 意義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自律은 언제나 그 自體의 價値와 意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學問의 發展을 위해서는 自律과 統合이라는 두 개의 相補的인 觀念이 緊密하게 連結되어야 된다. 自律이라는 有效한 觀念이 지나치면 孤立主義的 偏見에 빠질 우려가 있다 自律代身에 他律이 지나치면 統合이라는 健全한 原則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自律과 他律이 잘 調和될수록 學問은 그 만큼 더 發展한다. 우리는 學問의 特殊性에서와 마찬가지로 共通性 그리고 學問사이의 相互依存關係에도 깊은 關心을 가져야 된다.

諸自然科學의 分野에서는 諸概念의 論理的 構成 및 그 概念들의 相對的인 一般性和 複雜性에 따른 階層的 分類가 明白하다. 그러므로 諸自然科學에 있어서는 學問과 學問사이의 協力이 놀라운 程度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點은 人間 諸科學의 경우에 훨씬 미흡하다. 言語學의 隣接科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科學의 수는 대단히 많다. 그 많은 隣接科學들을 모두 논한다는 것은 筆者의 能力의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편집의 制限上 不可能하기 때문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隣接科學을 다섯개 골라서 略述하기로 한다. 잠정적으로 선택된 다섯개의 隣接科學은 記號學, 心理學, 人類學, 哲學 및 論理學이다.

## 2. 言語學과 記號學

記號學(semiologie)은 여러 가지의 記號體系의 機能作用을 支配하는 一般原理를 研究하여 이것들(여러 가지의 記號體系)의 類型學을 確立하려고 하는 學問이다.

記號學은 이 말의 近代的 意味에 있어서는 소쉬르에서 나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言語學은 더욱 一般的인 하나의 學問 卽 記號學에 包含되지마는 그 記號學의 對象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의 記號體系이고 言語는 이것들중에서 가장 重要的 體系이다.”<sup>1)</sup>

Saussure의 記號學의 基礎를 세운 最初의 業績이 E. Buyssens의 (Les Langages et le Discours, 1943)이다. Buyssens에 依하면 記號學이 담당해야 될 對象은 여러 가지의 意識狀態에 連合된 知覺可能한 事實들이다. 그러나 이 事實은 그 意識狀態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故意로 만들어진 知覺可能한 現狀에서 보는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도록 만들어진 事實이다. 따라서 記號學의 對象은 우리들이 「信號」 signal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限定된다. 이것과 反對로 R. Barthes가 이 學問의 領域을 意味作用을 가진 事實全部에까지 擴大했다. 그렇므로 Buyssens가 故意로 領域밖에 남겨둔 것 예를 들면 衣服과 같은 事實까지도 記號學에 包含하게 된다. 記號學의 對象이 되는 것은 Buyssens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고 Barthes에 있어서는 意味作用이다. 美國의 찰스 모리스 Charles Morris는 行動主義에 士氣를 두고서 「記號의 科學」의 一般理論을 세우려고 했다.

記號學은 모리스의 記號學을 除外하고는 言語學과 어떻게 다르냐에 의해서 成立되어 있다. 記號學의 基本的 線自體도 言語의 固有한 性格이 밝혀짐에 따라서 주로 그 線自體들의 言語에 固有한 性格과의 對照에 의해서 明白하게 된다. 이제부터 태어날려고 하는 새로운 學問인 記號學은 最近의 言語學에 있어서의 가지 各색의 概念의 發見과의 關連하에서 徐徐히 그 領域을 밝혀나가고 있고 規定을 받고 있다. 記號學과 言語學은 어느 意味에 있어서 相互依存關係에 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作用을 가지고 있는 事實一般에까지 研究의 領域을 넓힘으로써 비로소 言語라는 特殊한 領域속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作用의 本性을 올바르게 把握할 수 있다.

言語學은 言語活動의 諸機能을 밝혀왔다. 이들 機能중에서 言語學이 가장 重要視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機能이다. Buyssens 또는 그 외의 言語學者들은 커뮤니케이션의 意圖에 依存하는 事象을 그렇지 않은 事象으로부터 嚴格하게 區別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은 發聲者의 말소리는 보통 그의 性別, 年齡, 때로는 그의 體格, 그의 健康狀態, 地理的 및 社會的 出身, 그때의 精神狀態에 관해서 가르쳐 준다. 이들 指標 또는 徵候는 커뮤니케이션의 意圖가 없는 言語活動의 非機能的인 性格이다. 이것들의 性格은 言語의 記號體系에 屬하지 않는다. 우리는 徵候 또는 指標를 記號와 混同해서는 안 된다. 記號學은 記號를 指標 또는 徵候와 區別해서 다루어야 된다.

自然言語의 둘째의 特性은 記號의 恣意性이다. 올바른 記號學은 다음과 같은 두 種類의 커뮤니케이션의 體系를 混同하지 않는다. 즉 恣意的인 記號의 도움으로써 機能하고 있는

1) Godel,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 et Paris, 1957, p. 66.

코뮤니케이션의 體系와 또 하나는 記號內容과의 關連에 있어서 그만큼은 恣意的이 아닌 다른 記號에 의해서 機能하는 코뮤니케이션의 體系이다. 소쉬르의 論이에 依하면 이들 그다지 恣意的이 아닌 記號는 象徴 symbols이다. 象徴의 特質은 內容과 表現사이의 自然的인 印의 痕跡이 있다는 데 있다. 記號의 體系와 象徴의 體系사이의 對立關係에 의해서 우리는 記號學에서 새로운 秩序를 세울 수 있다. 例를 들면(工業的) 圖面, 繪畫, 彫刻, 映畫, 廣告, 포스터 등은 記號가 아니고 象徴에 屬한다.

言語分析에 있어서의 進歩는 셋번째의 區別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어떤 體系(記號體系 또는 象徴體系)에 의해서 機能하는 코뮤니케이션의 手段 即 明確하게 規定된 規則 또는 잘 알려진 規則에 의해서 明確하게 規定된 單位가 까맣추어지고 엄해서 이루어지는 體系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의 體系에 따라서 機能하지 않는 또는(가령 體系가 있다 할지라도) 그 體系의 實際의 單位 뿐만 아니라 이들 單位의 構造的인 規則도 確認되지 않는 體系가 있다. 故로 Buyssens는 體系의 코뮤니케이션의 手段 自然言語 鐵道 또는 海軍의 信號·樂譜·作詩法에 있어서의 韻律學을 無體系的인 手段(造形美術, 廣告의 포스터, 看板, 禮儀, 自然的인 品物)에 對立시킨다.

現代言語學은 自然言語에 特有한 넷째의 特色을 밝혔다. 그것은 自然言語의 線的인 性質이다. 그 意味는 말이 時間上에서 認定되는 記號의 連續에 依해서 構成된다는 것이다. 소쉬르는 이것을 聽覺連鎖 chaine acoustique이라고 表現했다. Buyssens는 이 特色을 線的인 性質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뮤니케이션의 諸體系를 線的인 性質을 가진 體系와 區別하는데 利用했다. 그는 言語를 여러가지 面에 있어서의 同時的인 複合을 提供하는 것이 可能한 눈에 호소하는(海軍記號) 코뮤니케이션 體系에 對立시켰다.

言語記號의 示差的인 性格도 言語學에 의해서 發見된 넷째의 重要한 特質이다. 만델브르트 Mandelbort는 示差的이란 말 대신에 不連續的 discrete이란 말을 쓰고 있다. 示差的인 記號에 의해서 機能하지 않는 모든 코뮤니케이션의 體系의 特性은 不連續的인 것과의 差異에 의해서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면 道路標識板에 그려져 있는 大型貨物車의 실루엣 silhouette는 示差的인 象徴이고 地圖上의 河川이 흐르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푸른 線은 水源부터 河口까지의 구분구분한 線의 굵기가 大體로 河川의 實際의 幅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示差的인 記號가 아니다. 여기에는 連續된 크기에 따른 連續된 크기의 象徴化가 있다.

自然言語의 最後의 特質은 言語의 二重分節이다. 이것은 自然言語를 다른 코뮤니케이션 體系와 區別하는 데 대단히 有效하다는 것이 밝혀진 特質이다. 自然言語는 두번 分節되는 記號의 體系이다.

言語活動의 最初의 分節은 말을, 意味를 가진 最少單位 即 記號素로 區分하는 分節이다. 두번째 分節은 意味를 가진 最小單位를 뜻이 없는 辨別的인 最少單位 即 音素로 區分하는 分

節이다.

이 分析은 言語學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하다. 오늘날까지 言語活動을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方法 特別히 動物에서 認定되는 體系와 區別할 것을 試圖했던 모든 學者들을 위해서 言語活動의 가장 놀랄만한 特色을 說明해 주는 것이 이 二重分節이다. 商業看板 또는 廣告 道路法規의 型, 製圖型 등은 第一次 分節만을 가진 記號 또는 象徴의 體系이다.

有能한 記號學者 L.J. Prieto가 쓴 책 "메시지와 신호"(Messages et Signaux, Paris, (1966)에서 指標, 信號, 徵候, 意味行爲, 狀況, 意味, 記號表現, 記號內容, 關與特徵 등의 概念들이 最大의 一般性을 가지고 그리고 同時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體系의 活動을 保證하기 위해서 相互間에 가지고 있는 嚴密한 關係속에서 定義되어 있다.

그의 記號學의 研究에 의하여 自然言語의 音韻論的 記述과 比較可能한 記號 또는 象徴의 體系의 「記號學的 記述」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sup>2)</sup>

### 3. 言語學과 心理學

心理學은 人間行動을 지배하는 一般法則을 發見하여 體系의 으로 記述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 學問이다. 옛날의 心理學은 主로 心的인 狀態와 心的으로 생겨기는 일들을 다루었다. 그렇다 고해서 옛날의 心理學者들이 마음과 心的인 實在가 人間의 肉體 그리고 肉體的인 事象과 獨立된 것으로서 存在한다고는 主張하지 않았다. 肉體에 對한 마음의 地位에 對한 問題 人間經驗의 두개의 構成要素인 心的의 事象과 肉體的 事象 사이의 關係에 대한 問題들은 아직도 論爭거리가 되어 있다. 言語學者가 여기에 끼어드는 것은 適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必要한 것도 아니다. 아마도 心理學者들은 主觀的인 事象이라고 불리어 왔던 것(일반적으로 感情·생각이라고 불리는, 個人만이 經驗하는 活動)이 그들의 研究領域의 重要한 部分이라고 主張할 것이다. 바로 그 主觀的인 事象이라는 것에서 心理學的인 研究와 言語의 研究사이의 主要한 連結이 생겨난다. 人間의 主觀的인 事象을 直接的으로 아는 것은 人間인이다. 공공연히 관찰될 수 있는 活動으로서의 사람의 明白한 行動은 그러한 主觀的인 事象의 증거가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 明白한 行動을 그들 自身의 經驗으로부터 推定하여 증거로서 提供한다. 이 行動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말의 活動이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感情과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傳達하고자 한다. 우리의 感情과 생각은 부지중애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 또는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方法 속에 드러날 수 있다. 人間의 個性을 나타내는 기질과 특징, 個人의 行爲에 관한 믿을 만한 가이드, 外部의 事件, 다른 사람에 對한 反應 등은 사람의 言語習慣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많다. 人間의 行動·經驗은 말과 密接

2) Georges Mounin, Introduction à la Sémiologie, by les Editions de Minuit, 1970(福非芳男, 伊藤晃, 丸山圭三郎譯 記號學入門, 東京, 1973, p.94-95).

한 關係가 있다. 言語學과 心理學이 그들의 各其 領域의 가장 자리에서 만나는 分野가 言語心理學이다. 概念形成에 있어서의 言語의 使用·言語習得·抽象과 같은 題에 대해서는 言語心理學의 領域 속에서 다루어질 問題들이다.<sup>1)</sup> 간단하게 말하면 言語體系를 抽象적으로 研究하는 것은 言語學의 分野이다. 그러나 人間이 言語體系를 어떻게 使用하느냐, 言語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를 研究하는 것은 心理學의 分野, 더욱 明確하게 말한다면, 言語心理學의 分野이다.

言語心理學에 있어서의 最初의 課題 중의 하나는 어린이들이 言語의 體系를 어떻게 習得하느냐 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對한 어떠한 結論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數의 어린이들로부터 충분한 資料를 모아야 된다. 그 이유는 어린이 언어의 여러 가지의 文法構造가 어른의 文法構造에 統合해갈 때에 어떻게 變化하고 展開하는가를 깊이 檢討해야 되기 때문이다. 불과 몇 안되는 學習原理 중에서 지금 많은 學者들이 好感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學習原理은 強化의 原理(principle of reinforcement)이다. 要컨대 強化되고 보답을 받는 反應이라면 어떠한 것일지라도, 즉 滿足스러운 結果를 얻는 反應이라면 어떠한 것일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 強化의 原理이다. 과연 이 原理는 學習의 동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對한 說明이 될지도 모르지만 學習 自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個人이 어떻게 새로운 反應을 만들어내느냐에 對한 說明은 되지 않는다. 強化의 原理의 實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아기가 우연히 [ma]와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하자, 이를 들은 어머니는 그것을 “엄마”로 해석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기쁨에서 아기에게 특별한 反應을 보인다. 말하자면 자극 反應의 연쇄작용의 첫단계가 시작된 셈이다. 어머니의 기쁨 표정이 나 표현이 아기에게 [ma]의 발음을 반복하게 하는 자극이 되고 이는 다시 어머니의 즐거운 反應을 불러 일으켜서 아기의 [ma]발음에 대한 動機를 強化한다.

複雜한 文法規則의 學習은 說明하기 어렵지만 어린이들이 言語記號의 意味를 어떻게 習得하는가는 說明될 수 있다. 言語記號 중에는 어린이들이 평소의 經驗으로부터 얻는 概念에 對應하는 것들—사과, 진화, 자동차 등—이 상당히 많다. 어린이들이 이러한 記號를 習得한다는 것은 單純한 條件反射의 原理로써 說明될 수 있다. 어린이가 앞에서 든 예 [ma]를 발음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므로 [ma]라는 소리와 “어머니가 나타나서 특정의 反應을 보인다”는 현상사이에 모종의 關係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ma]라는 소리의 意味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sup>2)</sup>

言語心理學은 사람들이 外國語를 習得하는 것도 다루어 왔다. 어른들이 外國語를 習得하는 것과 어린이들이 母國語를 習得하는 것은 全적으로 다르다. 어린이들이 母國語를 習得하는 경우에는 一時에 새로운 概念까지도 習得한다. 그러나 外國語를 習得하는 어른들은

1) R.H. Robins, General Linguistics, An Introductory Survey, London, 1964, pp. 361-362.

2) 文洋秀, 朴秉洙等 共著, 現代言語學, 서울, 1977, p. 324.

그와 같은 概念은 배워서 알고 있다. 正常的인 어린이들이라면 모두 母國語를 대체로 同一한 속도로서 배우지만 유년기를 지나서 外國語를 배우는 어른들은 習得하는 速度가 대체로 다르다. 이 때까지 問題가 된 것은 母國語이든 自國語이든 言語體系를 習得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言語心理學은 사람들이 習得한 言語를 어떻게 使用하느냐 즉 行爲이라고 불리는 것까지도 다루어야 된다.

人間이 言語를 어떻게 使用하느냐를 全部 科學的으로 說明한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일이다. 言語의 使用은 人間の 行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言語心理學은 人間の 行動의 大部分을 說明해야 된다. 이 目標을 向하여 진진하기 위해서는 言語心理學者는 조그마한 進歩로써 滿足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說明은 되는 段階는 여러 가지이다. 神經學의 段階에서 說明한다는 것은 거의 안되고 있는 狀態이다. 言語知識이 頭腦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또는 글이 形成될 때 頭腦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다. 說明하는 데 있어서 行動의 段階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는 正常的인 言語行動을 주의깊게 觀察하고 周到하게 考察된 實驗에 의지해서 言語使用者가 刺激條件과 말 行動 사이의 若干의 關係를 나타내는 特殊한 條件과 課題를 밝히고 결국은 이 관계를 支配하는 過程을 明白히 說明해야 된다.

실은 우리는 日常의 言語行動을 觀察하는 것에서부터 相當한 知識을 얻을 수 있다. 어른들이 單語들의 印의 쌍을 連合시키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어른들은 드문 單語의 쌍보다도 자주 쓰이는 單語들로 된 쌍을 더욱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單語의 程度는 가지자색의 말 行動에 있어서의 強力한 變數가 되어 있다.

말 行動의 觀察에서부터 글 形成의 過程에 관한 얼마간의 暗示를 얻을 수 있다. 미뜻거리는 말의 研究에 의해서 이러한 미뜻거리는 現象이 選擇성이 높은 곳—몇개의 單語들 중에서 任意의 하나를 골라서 插入할 수 있는 곳—의 直前에서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 알려졌다. 말을 미뜻거리는 것은 高度하게 自動化된 連續體의 한가운데, 예를 들면 as a matter of fact와 같은 것의 한가운데에서는 일어날 가망이 거의 없다.

하바드 Havard大學 教授 로저 브라운(Roger Brown)은 單語들이 어떻게 記憶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관한 興味있는 것들을 暗示하는 簡單한 實驗을 한 일이 있다. 이 實驗은 TOT, 즉 「tip-of-the-tongue」(혀끝) 現象에 관한 것이었다. 이 現象은 입에서 말이나올 뻔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는 經驗을 말한다. 브라운은 TOT 現象에 있어서는 目標語 target word의 語頭文字 또는 音節數에 관한 被實驗者의 推測은 目標語의 事實상의 特徵과 積極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統計學的으로 的의있는 증거를 찾아냈다. 바꾸어 말하면 單語들이 記憶에 貯藏된 경우에 그 저장은 그 單語들의 抽象形에 관한 것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言語心理學者가 좋아했던 또 하나의 實驗은 自由觀念連合 free association의 實驗이다. 이것은 精神病醫師가 精神病理學에서 精神의 抑壓을 研究하기 위해서 처음 開發한 實驗이다.

이 實驗은 어떤 單語를 被實驗者에게 알리든가 또는 보이므로 그 刺激語 以外の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單語를 報告해 달라고 要請하는 方法을 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도 音響連合을 제시하는 傾向이 약간 強하다. 어른들은 刺激語와 品詞가 같은 單語를 提示하지만 어린이들은 刺激語와 句 속에서 連語 sequence로서 사용될 수 있는 單語를 提示하는 傾向이 強하다. 예를들면 어린이들은 light에 對해서 bulb 또는 dress로서 反應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의 反應上의 이 相違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단어의 記憶痕跡을 組織化하여 文法的 等價語의 場(set)을 만드는 傾向이 強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解釋되어 왔다. 존 홉킨스(John Hopkins)大學의 제임스 더이즈(James Deese)는 自由觀念連合에 있어서의 觀念連合의 構造를 分析했다.

실은 言語의 心理學은 思考와 概念形成의 心理學과의 多少의 關連없이 거의 研究될 수 없다. 言語習得 以前에 농어자가 된 사람들부터 얻은 證據에 의하면 그들은 言語가 주는 概念의 名稱(names)을 쓰지 않고서도 思考가 되지만 概念과 비슷한 것으로서 思考함에 틀림없다고 생각되고 있다. 言語를 習得한 者에게 있어서는 思考가 더욱 빨리 더욱 圓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한 餘地가 없다. 言語가 概念을 명명(name)하고 規定한다는 면에서 思考에 影響을 준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言語心理學者는 單語가 表示하는 概念 뿐만 아니라 單語의 內包도 研究한다. 일리노이(Illinois)大學의 心理學者 찰스 오스굿(Charles Osgood)은 內包的 微妙한 相違를 測定하기 위해서 「意味偏差」 semantic differential라는 手法을 展開했다. 예를들면 單語 nice는 상냥하고 여성적인 것을 內包하나 good는 內包的 면에서 中性的이다. 오스굿은 內包面에 內在하는 세계의 次元을 찾아낸다.

評價의 次元 "evaluative" dimension—그 概念內容의 善惡의 程度, 可能力의 次元 "potency" dimension—그 概念內容이 얼마나 크고 強力하나의 次元, 「活動」의 次元 "activity" dimension—그 概念이 활동적인 點은, 아마 예기치 않은 行爲를 어느 정도 암시하느냐의 次元.

오스굿은 여러 가지 言語에 관한 「意味偏差」의 手法을 사용한 研究에서 세 개의 次元이 普遍的인 것이라는 것을 發見했다.<sup>3)</sup>

變形生成理論에서 본 言語習得觀에 의하면 아기는 두뇌속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能力을 타고난다. 노암 촘스키(Noaam Chomsky)는 그 能力을 언어습득장치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17세기의 合理主義 哲學者들의 本有的 概念과 原理(innate ideas and principle)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들은 本有的 概念없이 는 認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言語習得裝置는 모든 言語에 共通하는 言語의 原理를 說明할 수 있는 理論模型이다. 變形生成理論들은 타고난 이 理論模型으로써 아기의 言語習得이 可能하다고 본다. 言語學者가 言語를 研究하기 위해서는 言語理論이 必要한 것과 마찬가지로

3) Linguistics, Edited by Archibald A. Hill, U.S.A. 1969, pp. 187-194.



아기도 母國語를 習得하기 위해서 理論模型이 必要하다. 아기가 타고난다고 보는 이 模型은 無意識인 知識(unconscious knowledge)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무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言語習得裝置의 機能은 規則을 만들어 내는 機能이다. 그 裝置는 간단한 規則에서부터 복잡한 規則에 이르게까지를 만듦으로써 모든 文章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나이를 먹이감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言語資料가 점차로 복잡 다양해진다. 그들은 복잡 다양해지는 것에 발맞추어 단순하고 조잡한 규칙들을 계속 수정하는 試行錯誤를 거듭하면서 완전한 規則들을 세움으로써 완전한 언어사용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變形生成理論家들은 言語習得에 對한 行動主義的 見解를 不合理하다고 본다. 行動主義者들은 어머니 또는 주위의 어른들이 아기에게 모든 文章을 다 가르쳐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變形生成理論家들은 한 言語에서 可能한 모든 문장의 수는 無限하기 때문에 어머니 또는 주위의 어른들이 그 많은 文章들을 다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行動主義者에 맞서고 있다. 이상과 같은 見解에 의해서 變形生成理論家들은 言語習得裝置라는 假設을 세우게 된 것이다. 心理言語學者들은 이 假設에 의한 說明에 滿足하지 않는다. 그들은 實證的 증거를 요구한다.

#### 4. 言語學과 人類學

人類學은 주어진 文化의 特徵을 研究하는 學門이다. 人類學者는 人間의 文化的 行動樣式과 그 背後에 있는 內的인 型을 研究한다. 文化를 構成하는 것은 이러한 型이다. 型은 大部分 言語에 表示되어 있다. 따라서 文化속에 널리 퍼져 있는 言語體系를 記述하는 것이 人類學者의 豫備的인 作業이 되어 있다. 人間의 活動 中에서도 言語만큼 複雜하고 多樣스러운 것은 없다. 言語가 適當하게 構成要素로 分解되고 그 要素들이 機能場인 규모가 큰 構造와의 關係에 있어서 알맞게 특징지워진다면 言語는 人間集團의 文化 또는 社會組織 個人的 私的인 教養 또는 社會的 位階를 敏感하게 나타내는 指標가 될 수 있다.

人間의 言語는 複雜 多樣하기 때문에 言語學者가 아닌 人類學者가 그것을 分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人類學者는 言語學者들에 의해서 研究된 여러 가지 方法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言語의 흐름을 個個의 單位으로 區別하는 方法, 이 區分單位를 사용하면서 言語의 흐름 속 또는 背後에 숨긴 構造 또는 型을 發見하기 위한 方法이 區分單位를 그 構造 속에서 配置하기 위한 方法 등이다. 이러한 方法들은 人類學者를 위해서 人間의 文化·社會 關係를 分析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model)이 되어 왔다.<sup>4)</sup>

4) 文祥秀·林東洙 等 共著, 現代言語學, 서울, 1977, pp. 327-328.

1) Norman A Mcquow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Edited by Archibald A. Hill, Linguistics,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1969, p. 172-173.

言語學과 人類學의 관련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類學이 言語學의 方法의 도움을 받는다는 操作的인 必要性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言語體系의 구조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語彙的인 그리고 意味에 관한 면에서도 相關性이 있다. 친척관계와 사회적 지위의 體系의 言語的 表現은 그러한 相關關係를 잘 나타내는 例들이다.

Kroeber(1941)는 친척관계를 표시하는 말들을 語族(linguistic families)을 確定하기 위한 실마리로 삼았다. 言語學과 人類學의 一般的 關係에 관해서 Kroeber는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린다.

대체로 두 學問 중에서 人類學이 言語學에 依持하고 있는 學問이다. 그러나 그 關係는 複雜하다. 가끔 人類學者가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덕을 보는 言語學者도 있다.

그린버그(Greenberg)는 (Linguistics and Ethnology [言語學과 人種學], 1948)에서 言語體系의 意味部門의 完全한 記述은 文化的 事實에 관련시킴으로써만이 可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사 진 陳 述은 言語學者와 人類學者가 效果的으로 協同 研究할 수 있는 分野이다. 그린버그는 또한 言語의 意味分析이 人類學者에게 흥미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다. “그 까닭은 그 意味分析이 人類學者에게 話者들의 文化的 領域에 있어서의 對象物들의 徹底한 分類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린버그는 前述한 論文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言語學과 文化的 言語外的 斷面(extralinguistic segments)은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다. 人類學者는 피조사자의 말의 보기들을 文化的이고 人格的인 面을 나타내는 言語行動의 實例라고 볼 수 있다. ……言語學的으로 方向이 정해진 人類學者를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分野가 있지 마는 高度로 發達된 文化科學은 文化에 對한 言語學의 方法이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것 없이 생겨날 수 없다.」

클라이드 클루크혼(Clyde Kluckhohn)은 言語學的 研究에서 得을 많이 본 學者이다. 도로써 라이튼(Dorotha Leighton)과의 共著인 (The Navaho [나바호족] 1946, p. 184)에서 그는 Navahos를 다루는 行政家, 敎常, 宣敎師들은 나바호(Navaho)말의 構造의 두드러진 특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추천 할 뿐만 아니라, Navahos를 理解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그들의 言語와 言語가 생각, 관심, 태도들을 틀에 부어 만드는 方法을 알아야 된다고 確言하고 있다. 그는 그후에 나바호족과 白人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바호어(Navaho)와 英語사이 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 없는 것은 두개의 民族 사이의 前提, 基本的인 範疇, 根本的인 感受性, 感受性에 있어서의 內的인 差異의 外的인 表現에 不過하다.」

言語學과 人類學사이의 關係는 文化에 屬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서로 인사하는 方式과 같은 사소한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言語가 한 文化的 世界觀을 나타내는 方法에, 관해서도 分明히 나타난다.

言語學的인 문제와 人類學的인 문제가 密接하게 關連된 實例를 들어 보겠다. 미국 인디언말 중의 하나인 야나 Yana말에는 남성에 의해서 體系的으로 사용되는 말과 여성에 의해서 體系的으로 사용되는 말과의 滋味있는 區別이 있다. 남성말(männliche Sprechform)과 體系的으로 區別되는 어떤 말은 그 말의 토대가 되는 文(Satz)의 要素라는 것과 關係없이 여성에 의해서 사용된다. 즉 말의 形式은 話者의 社會的으로 承認된 性에 의존한다.

Sapir(Language, 1929에서)는 前述한 야나말에 對해서 話者와 職者의 性을 區別의 條件으로서 안다는 것이 根本的으로 重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Mary, Haas(men's and women's sheech in Koasati, 1944에서)는 Koasati말의 男性形과 女性形을 區別했다. 여기서 男性말과 女性말사이의 區別은 文章의 動詞形에서 나타난다. 만약 女性形이 엑센트가 있는 母音으로 끝나면 男性形은 女性形과 꼭 같다. 女性形이 어떤 다른 것으로 끝난다면 話者가 男性인 경우에는 接尾辭-S가 女性形에 첨부된다. 音韻的 變化의 복잡한 結果가 動詞의 끝에서 일어난다. 話者 또는 聽者가 文章에서 關與者로서 言及되는지 아닌지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다. 變化는 말이 話者의 性에 의지한다는 것에서만 일어난다. 말의 言表內容면에서는 男性말과 女性말 사이에 差異가 全然 없다. 말의 形式에 나타나는 文化的 行動面에서는 깊은 差異가 있다.<sup>2)</sup>

이상과 같은 種類의 言語手段(남성말과 여성말과의 區別)은 分明히 文化的인 指標이다. 우리는 이 指標가 現代 言語理論에 의한 文章分析이 다루는 普通意味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所謂 말하는 男性 形式과 女性形式을 觀察해야 된다.

이러한 言語形式들의 올바른 把握은 言語情況 속에 文化的으로 包含된 어떤 條件의 認識에 달려 있다. 이것은 人類學에 있어서의 發見이 言語學에 기여하는 例가 될 것이다.

다음에 말리노우스키(Malinowski)와 레비스트로스(Levy-Strass)의 人類學에 관해서若干 言及하고자 한다. 말리노우스키는 Trobriand 島民들 사이에서 쓰이는 圖騰에 관한 말의 研究으로써 有名하다. 그러나 이 研究는 그가 言語學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이 없었다는 것과 의심스러운 많은 前提를 채택했다는 것에 의해서 價値가 많이 低下되었다. 그는 共同社會의 言語를 研究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의 文化를 알아야 된다는 見解 때문에 學界의 好評을 받았다. 그 見解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의 意味를 분명히 지적하고 싶으면 그 말의 全環境과 全文化的 背景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서 본다면 人類學的인 資料는 言語學에 있어서의 重要하지만 逆은 옳지 않은 듯이 보일 것이다. 말리노우스키는 실은 텍스트(text)의 研究를 強調함으로써 傳統言語學을 맹렬히 反對했다. 그는 소쉬르의 말그 langue와 parole의 區別을 기부하고 말의 모든 研究는 반드시 社會學的인 研究가 되어야 된다고 主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이 最高의 業績이라고 불렀던

2) Michal Silverstein, Linguistik und Anthropologie(Herausgeber, Renate Bartsch, Theo Vennemann, Linguistik und Nachbar-wissenschaften, Kronbery, 1973:201-202).

研究에서 人類學的 觀察과 記述言語學者에 의해서 研究될 資料사이의 關係를 철두철미하게 다루었다. 萬若 말리노우스키가 記述言語學者였다면 言語의인 事實이 더욱 위압적인 합축을 가졌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3)</sup>

레비스트로스의 言語學과의 接觸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는 것은 言語學者 로만야콥슨(Roman Jakobson)과의 接觸이다. 야콥슨은 그가 가장 많이 引用하는 言語學者이고 그가 가장 잘 消化하고 있는 것은 야콥슨의 言語思想이다.

그는 音韻論을 言語學에 의한 그의 思考의 革新的 中心으로 삼고 있다. 그는 音韻論에서 부터 構造(또는 體系)의 概念과 對立의 概念을 借用했다. 그러나 事實은 이 概念들은 言語學에 特有的 것은 결코 아니다.

「親族關係의 조립요소는 意味要素이다. 이것은 音素처럼 하나의 體系속에 들어간다는 條件을 充足시킴으로써 비로소 그 意味를 獲得한다」라는 것이 그의 根本的인 命題가 되어 있다. 그는 「言語의 構造와 親族關係의 體系의 構造사이 에 形式上의 對應이 存在한다」라는 하나의 假設을 세운다. 이 假設에 依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의 飛躍이 일어난다. 「婦孺의 規則과 親族關係의 體系를 一種의 《langage》即 個人 사이 에, 集團사이에 어떤 型의 커뮤니케이션을 確保하기 위한 操作의 總和라고 본다.」 그는 한층 더 나아가서 「親族關係와 婚姻과의 規則은 經濟的인 規則이 財貨 또는 奉仕의 交換을 確實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言語·規則이 메시지(message)의 交換을 確實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과 같이 集團사이의 女性의 交換을 確實하게 하는데 쓰인다」고 斷言한다.

그는 1952년에 親族關係의 體系, 社會組織의 體系, 言語의 體系 사이에 相關關係가 存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假設의 形式으로서 提示했다. 이러한 假設은 많은 反論을 일으켰지만 그중에서 無視할 수 없는 것을 든다면 인도 유럽地域에 관해서 말한다면 古代의 部族, 奴隸制度의 帝國, 부르조아家族, 現在의 社會主義의 家族이라고 하는 一見해서 대단히 다른 親族, 社會構造가 이를 들면 러시아에서 지금도 인도 유럽의 言語一般의 構造와 가장 가까운 것인 슬라브의 言語構造와 지금까지 共存해 왔고 지금도 共存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言語學이 레비스트로스에게 構造의 概念의 豊富한 生産性을 啓示했지마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構造主義者가 되어 있었다. 構造言語學의 成功은 그에게 있어서는 構造의 方法을 人類學에 利用하려고 하는 企圖에 土臺를 주기 위한 誘惑刺戟, 根據의 役割을 한것에 不過하다. 그가 言語學으로부터 모든 構造가 가지고 있는 一般法則과, 言語의 構造에 特有的 法則을 차용했다. 前者의 適用은 人類學에 있어서의 嚴密한 構造分析의 場을 그에게 열어 주었다.<sup>4)</sup>

3) John B. Carrol (1961), The Study of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p. 116.

4) Georges Mounin(1960), Introduction à la Sémiologie(福井芳男, 伊藤晃, 丸山圭三郎譯, 記號學入門, 東京, 1973, p. 271).

社會的 行動을 說明하기 위해서 人類學者는 文化라고 불리는 概念體系의 表現으로서 말하고 特別히 言語行動을 說明하기 위해서 言語學者는 文法이라고 불리는 概念體系의 表現으로써 말한다.

어떤 것이 言語人類學的 問題가 되는지 實例를 들어 보겠다.

어떤 話者의 地方的인 出身을 확인시키기는 엑센트와 같은 성질을 가진 一種의 指標의 手段이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一定한 方法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社會的 階級 또는 그가 우리와 言語로서 統合하는 특수한 役割을 認識시키다. 人類言語學者는 이 상과 같은 鮮명한 音韻的 指標는 使用規則에 依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指標的 文化的 意味에 依存한다고 말한다.

言語人類學者는 文章의 完全한 意味를 알아냄으로써 말을 하는 方法이 文化的 要因과 맺고 있는 모든 關係를 研究한다.

## 5. 言語學과 言語哲學

言語學과 言語哲學이 서로 影響을 끼쳐기시작한 것은 最近의 일이다. 特別히 英國에서 言語哲學이 哲學안에서 中心的 位置를 차지했고 言語學은 眞正한 學問이 되는데 成功 했지마는 20世紀前半期 동안은 兩學問 사이에 交流는 있었으나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重要한 原因이 있다. 첫째 原因은 構造言語學은 哲學者들의 關心이 적은 分野인 音韻論과 形態論에서만 發展을 이룩했을 뿐이었고 構造言語學者들은 言語哲學에서 첫째로 研究되어야 할 意味의 研究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原因은 哲學者들의 言語哲學의 理論이 言語自體에 對한 關心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認識에 기인되었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Frege의 言語哲學은 그 根源과 目的은 論理學과 數學의 基礎와 관계되는 研究에 있다. 實證原理에 土產을 둔 論理實證主義의 意味理論은 自然語의 研究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認識論과 科學哲學을 爲한 努力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Russel의 言語理論, Wittgenstein의 研究는 人間의 커뮤니케이션의 研究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論理學의 領域에서의 研究와 象徴記號(symbolische Zeichen)의 本質에 관한 先驗的 理論에서 생겨난 것이다. 1950년대 末부터 言語學과 言語哲學의 相互間의 無關心은 두 개의 重要한 發展의 影響下에서 끝장이 났다. 하나는 Noam Chomsky와 그의 共同研究者들의 生成文法에 관한 研究이고 다른 하나는 J.L. Austin과 그의 學者들의 言語行爲(Sprachhandlungen)에 관한 研究이다. 두 學問의 發達은 哲學者들이 統辭論을 有用하게 利用하고 言語學者들은 言語行爲의 言語學的인 面을 研究하는 現在의 學問의 環境을 만들어 냈다. 이 兩 研究方向의 結合은 Chomsky에 의한 統辭論과 意味論의 分離의 거부와, 그들의 統辭의 研究가 어느 정도 言語行爲理論에 의지된 生成 意味論學者들의 研究에서 대단히 明

白하게 나타나 있다.<sup>1)</sup>

### ① Chomsky의 言語哲學

生成文法の 哲學的 意味를 考察하기로 한다. Chomsky는 言語學·心理學·哲學은 이미 別個의 自律的 學問이 아니라고 主張한다.

#### 理性論과 經驗論

Chomsky는 言語學이 人間精神의 研究에 重要한 貢獻을 할 수 있다는 것과 同時에 오랫동안의 理性論者와 經驗論者와의 哲學論爭에 있어서 前者의 立場을 支持하는 證據를 提供할 수 있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다. Chomsky가 人間을 보는 觀點은 物理主義·決定論과 判異하게 다르다. Chomsky는 처음부터 타고 난 精神이라고 하는 能力이 知識을 習得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環境의 外的刺激에 의해서 規定되지 않고 우리가 自由로운 行爲로써 行動하는 것을 可能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物理主義라는 것은 人間의 思想·感情·感覺에 관해서 陳述될 수 있는 것은 모두 人間의 肉體的인 狀態와 觀察可能한 行動에 關한 敘述로서 바뀔 能을 수 있다고 보는 主義이다. 따라서 物理主義는 그 모두를 〈物理的〉 法則의 範圍속에 넣을 수 있다고 主張하는 哲學體系이고 〈決定論〉은 「〈選擇이라든가〉 〈自由意志〉에 起因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바와 같은 人間의 行動 또는 意志決定判斷까지도 包含하여 모든 物理的인 事象 또는 現象은 그 以前에 생긴 事象 또는 現象에 의해서 決定되고 因果律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學說이다. 따라서 그 學說에 의하면 選擇의 自由라는 印象을 품는 것은 完全한 錯覺이다.」 Chomsky가 말하고 있는 것은 理性論이지 經驗論이 아니다.

#### 言語의 普遍的인 特性

Chomsky에 의하면 言語學의 中心課題는 人間의 言語構造에 관한 다음과 같은 演繹的理論을 建設하는 것이다. 「그 理論은 모든 言語에 適用될 정도로 一般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言語以外的 傳達體系 또는 言語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에까지 適用될 정도로 一般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을 바꾸어 하면 言語學은 人間言語가 가지고 있는 普遍的이고 本質的인 特質을 모두 規定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言語學의 定義는 서로 다른 수 많은 言語는 梁廚構造에 있어서는 대단히 類似하다는 信念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특히 重要觀한 類似性은 서로 다른 言語가 「文法的」 틀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같은 形式上의 操作(같은 形式上의 規則—成分構造規則, 變形規則)을 사용한다는 事實이다.

#### 普遍文法の 哲學的 意味

어린어들은 人種·血統과 關係없이 〈言語〉를 學習하는 같은 能力을 타고 난다. 어린어들은

1) John Searle, 'Linguistik und Sprachphilosophie'(Renoate Bartsch, Theo Vennemann [Hrsg.] Linguistik und Nachbarwissenschaften, Kronberg 1973. p. 113-114).

이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글을 만들어 내고 理解할 수 있는 創造的인 能力을 어떻게 해서 發達시키는 것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이들이 普遍文法の 諸原理에 관한 知識과 自己周圍에서 사용되는 말을 分析하는 경우에 이들 諸原理를 使用하는 素質을 타고 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人間의 言語構造를 決定하고 있는 普遍原則에 관한 어린이들의 知識이야말로 言語習得에 관한 經驗論的인 說明의 缺陷을 補充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들 原理는 Platon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理性論의 傳統에서 말하는 <生得的 觀念>과 거의 一致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들은 일이 있는 비교적 적은 수의 말을 토대로 하여 상당히 짧은 期間동안에 言語의 文法規則을 自力으로써 組立하는 能力을 가지게 된다. 이 能力은 經驗論的인 言語習得論으로서는 說明될 수 없다.

### 言語行爲(Sprachhandlungen)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基本的인 單位는 文章이 아니고 非表現的인 行爲(illokutionäre Handlungen)이다. 文章은 어느 정도까지 잠재적인 非表現的인 行爲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일정한 意味를 가진 統辭의 單位로서의 文章은 하나의 裝置이다(이 裝置를 말에 의해서 表示한 것이 非表現的인 行爲의 實行이다). 그런 까닭에 文章의 統辭의 研究는 裝置의 構造의 研究인데 裝置의 固有한 目的은 非表現的인 行爲의 實行이다. 文章의 意味論은 非表現的인 行爲가 그것에 따라서 實行되는 規則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우리는 文章 내부에서 行爲의 命題의 內容· 그 行爲의 非表現的인 힘을 區別할 수 있다. 다음에 實例를 들어서 어떻게 區別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Werden Sie die Tür schliessen?  
 Sie werden die Tür schliessen.  
 Schliessen Sie die Tür!  
 Ich wünschte, Sie schliessen die Tür!

위의 文章들에 있어서 '당신이 문을 닫는다'는 命題는 네개의 非表現的인 行爲에 共通된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命題가 나타내는 非表現的인 힘은 文章마다 다르다. 첫째는 물음, 둘째는 豫言, 셋째는 命令 또는 부탁, 네째는 소원 또는 慾求의 表現이 나타나 있다. Austin은 非表現的인 行爲로서의 性質을 가장 明確하게 가지고 있는 發言을 遂行的인 發言이라고 부른다. 典型的인 遂行的인 發言에 쓰이는 動詞들은 「確言하다. 묻다. 명령하다. 約束하다. 네기하다. 사과하다., 충고하다. 위협하다. 의무를 지다. 빌다. 경고하다.」 등이다.

커뮤니케이션이 言語의 目的이고 커뮤니케이션의 基本單位가 非表現的인 行爲이기 때문에(即, 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은 非表現的인 行爲를 遂行하는 것이다.) 統辭는 非表現的인 行爲의 많은 特質들을 밝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고 反對로 非表現的인 行爲의 研究는 상이한 統辭

의인 問題를 밝힐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 非表現的 表現의 類型

非表現的 行爲의 類型이 몇개가 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Austin은 大略 七개의 非表現的 動詞와 動詞의 表現을 수집했다고 主張한다. 이 動詞들은 그것에 의해서 表示 되는 行爲가 대단히 다양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動詞들에 對한 충분히 理由가 있는 分類를 못 가지는 한 우리가 非表現的 動詞들의 만족할만한 理論的 記述을 얻는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特히 Austin의 初期의 分類는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 非表現的 行爲의 수많은 種類를 區別할 수 있는 基準이 없었다. J.R. Searle은 非表現的 意圖를 分類의 土臺로 삼고서 다음과 같은 分類를 제의했다. 그 分類에 따르면 非表現的 行爲는 다섯개의 範疇로 나누어진다. 範疇를 표시하는 다섯개의 術語에 對한 우리말의 적당한 번역이 없기 때문에 Searle의 原語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 |                    |                |               |
|--------------------|----------------|---------------|
| 1. Repräsentative. | 2. Direktive   | 3. Kommissive |
| 4. Expressive      | 5. Deklarative |               |

이상의 다섯개의 分類중에서 理解를 便宜上 다른 것들은 省略하고 4. Expressive만을 골라서 說明하겠다.

#### 4. Expressive

이 範疇의 속에 들어갈수 있는 개체들(members)의 非表現的 意圖는 命題內容속에 나타나 있는 實狀에 대한 話者의 心的인 關係를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표시, 축하, 사과, 조위, 불평 등이 대단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약간의 예들이다.

이상과 같은 번주들에 속하는 非表現的 行爲는 文章統辭의 도움을 얻어서 實行된다. 이런 경우에 非表現的 類型의 區別이 어떻게 文章의 統辭속에 가라 앉아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非表現的 類型과 文章統辭와의 關係를 4. Expressive를 본보기로 하여서 說明하겠다.

독일말을 예로 들면 《Ich bitte um Entschuldigung dafür, dass ich ihnen auf den Fuss getreten habe》 혹은 《Ich beglückwünsche Sie dazu, dass Sie das Rennen gewonnen haben》이라는 文章들의 深層構造는 Ich 動詞 Sie+Ich/Sie VP이다. 從屬文章은 여기서는 보통 代名前置(Pronominale Vorausnahme)(da-)를 가진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獨逸語에서 다음과 같이는 말할 수 있다.

(?) Ich beglückwünsche Sie, das Rennen gewonnen zu haben.

(?) Ich beglückwünsche Sie, das Rennen zu gewinnen.

(?) Ich beglückwünsche Sie zum gewinnen das Rennens.

Ich beglückwünsche Sie dazu, dass Sie das Rennen gewonnen behen · Ich beglückwünsche

Sie+Sie haben das Rennen gewonnen.이라는 深層構造의 表層構造이다.



表現動詞(expressive Verben)은 不定法을 許用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普通 代名前置를 가진 dass-文章을 要求한다. Ich bitte um Entschuldigung dafür, dass ich mich schlecht benommen habe.이라고 말 할 수 있으나 Ich bitte um Entschuldigung, mich schlecht+zu benehmen은 不可能하다. 統辭形式과 非表現的 意圖사이의 이상과 같은 關係는 統辭的形式을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그 形式에 의해서 實行되는 非表現的機能의 土臺 위에서 밝힐 수 있는 可能性을 意味한다. 非表現的機能과 統辭的 形式 사이의 相互關係의 研究가 言語哲學者와 言語學者에게 生産的共同研究의 領域을 제공할 것이다.

### 形而上學

論理實證論者들은 形而上學이 研究하는 것은 답변할 수 없고 意味가 없는 문제들이라는 見解를 갖고 있지만 形而上學은 일반적으로 哲學의 가장 當당한 分野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Ernst Cassirer의 “象徴形式의 哲學”(Philosophy of Symbolic Forms)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는 言語共同體에 屬하는 人들의 思考方式을 言語의 多樣性속에서 表現된 概念分析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면 空間 時間 數 등의 概念은 認識의 보편적으로 根據가 있는 範疇라고 評價된다. Cassirer가 쌓아 둔 資料는 “言語가 世界觀을 反映한다.”는 說을 研究하는 人들에게 소중한 것이 될 것이다.

## 6. 言語學과 論理學

學問과 學問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境界線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단히 複雜하고 말끔하지 않다. 言語學과 論理學사이의 境界도 例外가 아니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 글에서 論理學과 言語學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傳統論理學과 傳統文法의 目標

좁은 意味에 있어서 傳統論理學은 文章의 統辭的 形式과 文章의 意味사이의 關係를 研究했다. 그러나 좁은 意味에 있어서 傳統論理學의 主要한 課題는 바른 思考의 概念을 理解하는 데 있다. 一定한 前提에서 一定한 論理的인 結論이 나오는 것을 提示하는 것이 理性的인 思考의 實例라고 간주된다. 傳統論理學에서 研究된 論據(Argumentic)는 이상과 같은 좁은 意味를 멀리 넘어서서 自然言語속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論理學의 텍스트가 自然言語의 統辭的 分析을 다루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 이 아니다. 그러므로 論理學의 研究는 傳統文法의 研究와 서로 엮일리게 되는 것이 많았다. 傳統文法의 目標은 그 本質에 있어서 自然言語의 文章의 統辭形式과 意味를 서술하는데 있다. 傳統論理學이 이 目標을 추구하는 目的이 傳統文法의 것과 다르다. 傳統論理學의 目的은 바른 思考를 記述하는 것인 듯하다.

## 自然論理의 言語的인 問題

이 問題에 있어서 留意해야 될 두 가지 面이 있다. 그것은 多數와 多樣性이다. 多數에 關係해서 말한다면 自然論理가 分析해야 될 自然言語에 있어서의 文章의 數는 無限하다는 것이다. 多樣性에 關係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自然言語의 文章의 意味를 統辭構造의 機能으로서 더욱 縝密하게 規定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우리는 統辭的構造의 압도적으로 많은 多樣性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例를 들면 John believes라는 文章에 있어서 believes의 直接目的語로서 可能한 統辭的 構造는 압도적으로 多樣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다: Fred/what Fred said/whatever Fred says/the rumor that Fred is a bigamist/in god/.../mary's lie/등등<sup>1)</sup>

## 曖昧性問題

自然言語의 文章은 흔히 하나 이상의 意味를 가질 수 있다.

## 不一致問題

自然論理學의 대단히 어려운 問題는 自然言語의 文章의 統辭構造가 論理學構造를 確實하게 反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自然言語는 너무나 적은 統辭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理由는 똑같은 統辭的形式을 가지고 있는 文章들이 相違한 妥當한 論證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自然言語는 너무 많은 統辭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異論의 餘地가 없을 程度로 相違한 統辭的形式이 論理的으로 價値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自然論理學은 統辭的 構造와 論理的構造를 形式的으로 區別해야 된다.

## 現代論理學과 言語學

形式論理學의 모든 것이 日常言語의 論理의 特徵을 밝히려는데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近代의 記號論理學의 發達은 數學의 基本概念을 定式化하려고 하는 願望과 密接하게 結合되어 있고 論理學의 體系들이 높이 評價되는 것은 그 體系들이 數學의 概念規定에 이마지 하기 때문이다. 數學的인 論證을 判斷하기 위해서 現代論理學者들은 言語學者들이 아마 數學의 言語를 위한 普遍文法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냈다. 標準述語論理(SPL)·라고 알려진 이 文法은 普遍文法인 同時에 普遍統辭論이다.

論理學의 體系를 數學의 概念規定에 利用한다는 것은 論理學의 應用面이다. 論理學者들은 應用을 위해서 보다는 그 形式論理學 自體를 위해서 形式論理學의 體系에 關心을 가지

1) Keenan E.L.(1973) 'Linguistik und Jogik'.(Benake Bartsch, Theo Vennemann·編 Linguistik und Nachbarwissenschaften, Kronberg, p. 95-96).

고 있다. 그들은 다른 體系가 가지고 있는 一般的인 特性 예를 들면 一貫性 또는 完全性을 規定하고 比較하는 것에 興味를 가진다. 그리고 또 어떤 公理 또는 規則을 보태는 것 혹은 버리는 것이 定理의 集合에 어떤 影響을 주는가를 比較하는 것에 關心을 가진다. 이것은 數理言語學者도 마찬가지이다. 數理言語學者들은 여러가지 類型의 文法の 一般的인 特性 그리고 生成된 文章들의 集合이 그 文法에 包含된 規則의 型에 따라서 어떻게 變化하느냐를 研究한다. 그들은 이들 文法이 現實의 言語의 文法과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에 對해서는 關心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論理學者가 自然言語의 論理的인 特性의 一部를 실제로 規定하는 일에 着手하는 경우에도 그 쪽은 너무 간단하게 해치워버리고 주로 그가 만들어낸 體系의 哲學的인 含義에만 注意를 기울인다. Quine과 같은 다른 論理學者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日常言語의 複雜한 論理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代置되는 것 即 科學的 問題를 진지하게 論하기 위해서 日常言語를 補足하는 一貫性있는 嚴密한 言語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言語學과 論理學의 關係를 論하는 範圍는 日常言語에 나타나는 論理的 關係의 解明을 主眼으로 삼는 論理作業의 一面에 限定되어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論理學者와 言語學者는 研究하고자 하는 對象이 다르다. 論理學者가 사용하는 基本的 概念은 形式言語에 土產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純粹한 言語學은 自然言語에 관한 組織的이고 內在的分析을 出發點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論理學과 言語學은 意味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兩者의 觀點은 다르다. 그러나 分明히 다른 두개의 觀點은 서로 相補性(complémentarité)의 관계가 있는 2개의 部分的인 그러나 忠實한 記述樣式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앞에서 一貫性 있는 嚴密한 言語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論理學을 爲한 人工的 構築物이다.

論理學者들은 그들의 學問을 위해서 人工的인 形式言語를 만들어 냈고 現在도 必要에 따라서 만들어 내고 있다. 人工的 形式言語중에서도 가장 完成된 形式言語는 數學의 形式言語이다. 數學者는 그것이 日常言語에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우리는 形式化된 言語를 自然言語의 變形物이라고 볼 수 있다. 形式言語와 自然言語와의 比較研究는 그들의 서로 一致하는 特質과 相反되는 特質을 밝히는데 대단히 有效하므로 言語學者와 形式言語의 專門家 即 論理學者와의 緊密한 協力을 必要로 한다. 이 相互協助는 言語學이 더욱 더 精密하게 그리고 明確하게 自然言語의 特殊性을 確認하는데 도움이 된다. 反對로 論理學者는 形式化된 上部構造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그 上部構造와 그 自然的 基盤을 組織的으로 대조시켜야 된다. 그 대조는 嚴密히 言語學的 解釋을 받아야 된다.<sup>2)</sup>

言語學과 論理學에서 研究되고 있는 言語는 原理面에 있어서도 一致하지 않는다. 論理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定式은 文章의 論理形式을 表示한다. 論理定式은 言語의 文章의 表示

2) Jakobson, R.(1970). Main Trends in the Science of Language. New York. pp. 29-30.

가 될 수 없다. 事實 表層構造가 예매한 것 없이 명료하게 論理形式을 나타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論理學者에 의해서 研究되고 있는 「文章」即 그의 體系의 適格인 定式은 自然言語의 表層構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느 意味에 있어서의 論理學은 表層에 對해서는 關心이 전혀 없다. 論理的特性 또는 論理的關係에 관한 陳述은 特定言語에 관한 事實과는 關係가 없다.

形式論理學을 研究하는 理由중의 하나는 그 研究가 論理記號으로서 表示되지 않은 普通의 日常的 論述의 妥當性을 評價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常的 推論의 不正確한 것 不明瞭한 것을 除去하는데 形式論理學이 궁극적으로 유용한지 이면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論理體系의 定式을 日常言語의 文章과 어떻게 嚴密하게 連結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論理體系의 推論規則에 해당하는 것이 文法에는 없다. 우리가 論證을 目的으로 하여 우리의 言語의 文章을 어떻게 使用하느냐는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 言語學의 領域에 屬하는 問題가 아니다. 그러나 推論規則의 線에 따른 어떤 方法이 自然言語의 完全한 記述에 있어서 어떤 役割을 할 것이라는 것은 論證될 수 있는 생각이다.

言語記述과 論理體系는 둘다 그들 各共 語彙에 있어서의 適格인 記號列의 集合을 規定하는 規則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類型의 體系는 그 對象言語의 種類는 다를지라도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論理學者는 먼저 規則의 體系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自己가 規定하는 言語를 考察하지만은 言語學者는 自己가 研究하려고 결정한 言語를 規定할 수 있도록 規則을 만든다. 兩者는 對象이 自然言語와 人工言語이라는 差異는 있지만은 어느 言語의 統辭論과 意味論의 形式的陳述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는 變함이 없다.<sup>3)</sup>

形式論理學의 體系는 自然言語보다는 훨씬 좁은 意味領域을 包含하고 있다. 研究對象의 言語의 表現範圍가 이와 같이 限定되어 있는 것에서 생기는 利點은 그 範圍內에서의 諸關係가 明確하고 一般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만들어지고 研究된 論理의 體系가 事實 그 範圍가 限定되어 있지만은 原理적으로 말해서 論理의 體系가 表示할 수 있는 意味의 局面에 限界가 있는지 어떤지는 明確하지 않다.

論理學者들은 自然言語는 그 構造에 있어서 不正確, 曖昧, 多義, 不明瞭이라는 缺陷을 가진 2流의 記號體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論理記號 또는 論理規則의 嚴密한 體系으로써는 自然言語의 完全한 記述이 不可能하다고 본다. 그러나 自然言語의 意味의 可變性 그리고 많은 數의 그리고 廣範圍하게 미치는 意味의 移動 및 多樣한 바꾸어 말하기으로의 無限한 適合性은 바로 自然言語의 創造性에 有利하게 作用하여 詩的 活動뿐만 아니라 科學

3) Janet Dean Fodor(1970). Formal Linguistics and Formal Logic.(Edited by John Lyons (1970). New Horizens in Linguistics. England Penguin Books p. 202).

的活動에 對해서도 永續的 創意的 可能性을 주는 特質이다.<sup>4)</sup>

우리는 意味表示가 明示的이고 可能한 限 一般的인 規則의 集合에 의해서 統語表示으로 寫像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意味表示와 寫像規則을 規定하려고 하는 일에 直面하고 있는 言語學者는 論理形式의 表示와 統辭構造사이의 翻譯規則을 提供하지 않으면 안되는 論理學者와 運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 論理學과 言語學의 將來의 關係에 關하여

論理學과 言語學은 그 根本에 있어서 言語의 統辭와 意味의 分析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이 두 學問의 發達은 過去現在를 가릴 것 없이 서로 依存關係에 있었다.

장래에는 양학문은 그 發達을 위해서 과거 현재보다도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장래에 있어서의 양 學問의 相互間的 發展을 위해서 새가지 점을 제시하고 싶다.

① 論理學은 먼저 單純하고 一般的인 表示와 規則에 의해서 近似價値를 구할 수 있는 작은 領域을 고루고 그것부터 점차적으로 言語의 다른 領域 그리고 또 이미 연구한 領域의 더욱 세밀한 部分으로 그 射程을 넓혀 나간다. 이것에 對해서 言語學者는 自然言語이라는 방대하고 뒤 얽힌 對象全體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떤 種類의 表面的 規則을 끌어 내어 여기서부터 거꾸로 그 基底에 있는 抽象的인 統辭上의 그리고 意味上의 類型化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諸問題로 研究를 맡고 나간다. 장차 論理學者와 言語學者가 그 길의 도중에서 만나서 兩者의 사이에서 言語의 性質에 관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빛나는 날이 오는 것을 꿈꾸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sup>5)</sup>

② 自語言語와 論理體系를 連結시키는 嚴密하고도 明示的인 翻譯規則이 定式化되어야 된다. 論理學의 教科書에서는 翻譯의 원리가 非形式的으로 提示되어 있다. 一般的인 示唆와 주먹구구식의 規則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③ 앞으로 言語學은 다음과 같은 點에 있어서 理論學에 貢獻할 수 있다.

自然言語의 文法을 記述하는 경우에 우리는 文章構造에 있어서의 表面上의 多樣性 또 애매성을 빗기비리고 그 實際의 構造를 形式的이고 明示的인 거리고 파악물이 없는 表示의 方法으로 提示하기 때문이다. 基底에 있는 構造를 어떻게 表示한다면 意味에 관련된 文法關係가 明示되고 解釋에 관련되지 않는 表層構造에는 나타나지 않은 項目이 보충되어 意味에 관련되지 않은 雜物은 除去된다. 이렇게 해서 翻譯上의 問題의 大部分은 解決된다. 왜냐하면 論理學者는 이제야 그 論理形式의 表示를 文章의 意味에 대해서 어떤 시종일관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基底構造에 관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Jakobson, R. (1970). Main Trends in the Science of Language. New York. p. 29.

5) Janet Dean Fodor(1970). Formal Linguistics and Formal Logic.(Edited by John Lyons (1970). New Horizons in Linguistics, England.. Penguin Book. p. 204.

## Linguistics and Adjacent Sciences

Shin Ik Sung

Linguists have tended to be somewhat insistent on the need for autonomy, because they have felt that, in the past, the study of language was usually subservient to and distorted by the standards of other studies such as logic, philosophy and literary criticism.

The principle of 'autonomy' as it has been applied in linguistics over the last fifty years, has led to a more general conception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language than was possible in the earlier periods of linguistic scholarship. (J. Lyons, 1970, *New Horizons in Linguistics*, England)

Now that linguistics has become a mature academic discipline with its own methodology there is no longer the same need to insist upon the principle of 'autonomy'.

That linguistics is now less insistent on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not the tendency that linguistics only has: it is part of a marked trend in such behavioural sciences as linguistics. The barrier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are now rapidly weakening,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particular problems are increasingly being undertaken. As a direct result of this trend towards multidisciplinary synthesis there has been a growth of interest in the exploration of topics in the borderlands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older disciplines.

The complementary notions —autonomy and integration have to be intimately linked. In other words, we have to pay equal attention to the specifics in the structure and in the development of any given province of knowledge, and furthermore to their common foundations and developmental lines as well as to their mutual dependence.

Shortly after the Hague Congress Edward Sapir argued that linguists, whether they like or not, must become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many anthropological,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which invade the field of language, because it is difficult for a modern linguist to confine himself to his traditional subject matter. Unless he is somewhat un-imaginative, he cannot but share in some or all of the mutual interest, which link linguistics with anthropology and the history of culture, with sociology, with psychology, with philosophy, and more remotely, with physics and physiology' (E. Sapir,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 1924, p. 166)

At present, we are faced with an urgent need for an interdisciplinary teamwork to be pursued diligently by savants of *different* branches. *Linguists* has to examine intens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linguistics and the adjacent sciences.